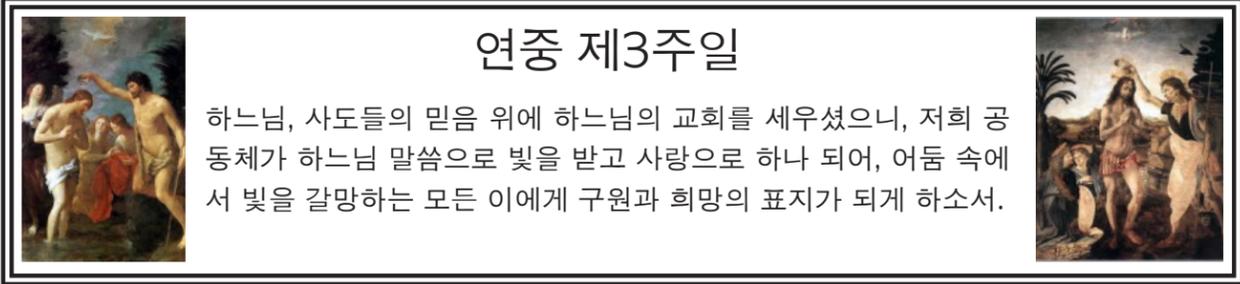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3주일

하느님, 사도들의 믿음 위에 하느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저희 공동체가 하느님 말씀으로 빛을 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과 희망의 표지가 되게 하소서.

1월 기도지향

- 캔사스 한인 공동체와 쉬는 교우를 위해

2월 기도지향 가정 :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가정 /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가정

구역 조정 및 구역장 임명

- 1구역(I-435 기준 N.) : 안혜진 임마콜라따
 - 2구역(143rd 기준 N.) : 박희영 카타리나
 - 3구역(143rd 기준 S.) :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 2월부터 총구역장님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합동위령 미사

새해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앞서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과 부모, 형제, 은인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26(일) 11시 중심미사

초 축복

“주님 봉헌 축일(2/2)”을 맞아 1년 동안 제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봉헌 받습니다. 각각 4불입니다.

구역회의

- 일시 : 1/26(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견진교리 일정

- 일시 :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 회관
- 교재 : 가톨릭 교회 교리서

견진교리에 앞서 대상자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1210항 ~ 1321항을 필사하여 2/28(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31	213	156/170	34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중 복사
금주	정병훈(보니파시오)	정수환(베 드 로)
	김준영(요 셉)	정예찬(미 카 엘)
차주	문석찬(요 셉)	이우영(가브리엘)
	문호진(안토니오)	이원준(요 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카타리나)	차호섭(요 셉)
차주	김명은(안 젤 라)	차서은(세라피나)
		정수환(베 드 로)
		김주연(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다 함께
차주	최선윤, 신혜경, 정선식, 서정애, 김수연

헌금 봉사자

금주	문석찬(요 셉), 최은미(아 네 스)
차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환(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19	84명	352불	1,500
홍순익, 이현구, 임지현, 문석찬, 차호섭, 김대성, 류기범, 정수환(총 8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이 겨울에는 많은 사람이 가난과 추위와 고독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늘 나라의 도래는 다름 아니라 구원 약속의 성취를 뜻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구원의 작은 도구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빛을 전하는 노력을 하기로 다짐하며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합시다.

성화해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 4,19-20)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 8,23ㄷ-9,3 <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



- ◎ 주님 께서 나의 빛 내구원이 시로 다 내구원이 시로 다
- 주님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거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내 생명의 바위시거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오직 하나 주님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 당신의 성전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것이어라. ◎
- 생명의 땅에서 주님의 복을 저는 누리리라 믿삽나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너는 아귀차져라. 네 마음 굳게굳게 주님을 기다려라. ◎

제 2 독 서 : 1코린 1,10-13.17 < 모두 합심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 음 : 마태 4,12-23<또는 4,12-17> <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 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

쉐 마

“천대받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천대받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지방에 가서 자리를 펴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가난하게 살아라.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지극히 가난하게 오셨던 그분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의 사람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에게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천대 받고, 무시 당하고, 보잘것 없다고 느끼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다. 이 카파르나움에 살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세례를 청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들 모두는 기뻐했습니다. 그 동안 보잘것 없다고 느끼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그 답답한 마음이 오늘 예수님 때문에 모두 풀렸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벌써 하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있습니까? 사람들로 부터 천대 받고 무시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의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천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 상황, 일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 하소연을 합니다.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 했습니까? 나보다 열심히 성당도 안 나가고, 더 죄를 많이 짓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팬찮아지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제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당에 앉아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 속으로 화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일상을 살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실패란 없고, 늘 성

공과 성취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좋을까요?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나와 내 가족만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동시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앞서가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뒤에 있어야 합니다. 소위 성공이란 것이 이렇지요. 누군가의 성공은 다른 어떤 이의 실패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맛보는 그 시간에 내가 실패의 쓴 맛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시고, 곁에 와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것 이상으로 큰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래서 스스로 천대하고, 무시할 때, 의식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 그 시간에 와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신 것처럼, 내가 스스로 또는 사람들로 부터 천대 받고, 멸시 당할 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이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우리를 감싸주시는지요.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는지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께로 몸과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천대 받고, 홀대 당하는 내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봅니다. 벌써 몸이 예수님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분의 눈과 미소를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요. 그 동안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내버려두신 하느님, 예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당신께서 직접 제 삶의 자리에 오셔서 저를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벌써 저는 당신께 엎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지치고 힘겨웠지만 지금은 마음이 벅칩니다. 당신의 빛과 사랑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 제가 그 동안 그렇게 저 자신을 천대 했을까요?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이렇게 아끼시는데 저는 왜 당신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천대받고, 천대하던 제게 당신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빛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빛이 떠올랐습니다.

- 예수회 김동일 신부 -

마중물

일회용 반창고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하인에게 자기 아이들을 잘 돌보고 옷 관리를 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에게 하인이 보고했습니다. “주인님, 여기 아이들의 옷은 깨끗하게 잘 세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잃어버린 하인은 주인에게 엄한 질책을 받고 그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인과 같은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체를 위한 건강, 지식, 이 돈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마칠 때 사람들이 후회할 일이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아무리 눈

에 보이는 삶을 잘 살았어도 영혼의 관리를 잘못했다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하느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만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70년 정도 사용하고 마는 일회용 반창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영혼은 이미 영혼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없이는 천국에 대한 보장도 하느님의 자비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해’교육자료

제 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74. 교회(敎會)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뜻하는 라틴 말 에클레시아(Ecclesia)는 그리스 말의 엑칼레인(ek-kalein) 즉 ‘밖으로 부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말은 ‘불러 모음’을 뜻하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백성의 집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 말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 앞에 모인 선택된 백성들의 집회, 특히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율법을 받아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시나이 산의 집회에 자주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초기 공동체는 스스로를 ‘교회’(Ecclesia)라고 부름으로써 자신들이 그 집회의 계승자임을 자처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극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교회를 뜻하는 Church(영어), Kirche(독일어)의 어원인 그리스 말 Kyriake는 ‘주님께 속한 모임’을 의미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51항 참조).

75. 그리스도교 용어로 볼 때 ‘교회’의 세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 용어로 볼 때 ‘교회’는 ①전례적 집회를 가리키고, 또한 ②지역 신자 공동체를 가리키거나 ③은 세계 신자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는 서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서 모으시는 백성입니다. 교회는 지역 공동체 안에 존재하며, 전례의 거행, 특히 성체성사를 위한 전례적 모임으로 실현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로 살아,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52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